

사설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

새해벽두부터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출가와 재가의 바람직한 변화들이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들이 시행된다

우려 불자들은 또 곧잘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 곧 간화선이며, 불교만큼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하는 자만에 가까운 자부심에 안주하고 있었다

교육원은 특히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간화선 수행에 대해 논의하는 무차선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그러나 중앙종무기관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일선 사찰의 주지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사찰마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실행계획이 나와야 한다

각 사찰에서 신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포교원의 계획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수행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 불교의 반(反)수행, 교육 부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몇 사찰을 빼고 신도들에 대한 교육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도교육에 무관심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믿어야 하는지, 가르침의 자기화와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절에 30년을 다녀도 불교의 이치를 모르는 불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그 동안의 사정이기 때문이다

시대변화 능동대처 하자

건강한 종교는 사회의 변화를 앞서 나가며, 그 사회가 필요한 일들을 미리 준비하여 사회를 앞장서 이끄는 역할을 한다

계로 조직화하여, 봉사가 불교인의 기본 신행으로 자리잡게 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조직된 자원봉사의 체계를 활용하여 불교의 여러 낙후된 부분들을 강화 정비하고, 그 힘으로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찰을 찾게 될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하고 불교를 알리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불교가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교세에 걸맞은 위상을 지니지 못한 것은 모두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장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에 있어서의 불교 역할도 마찬가지로 불교 종단과 신도들이 함께 움직이는 조직적 연계가 있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될 수 있다. 커다란 구호만을 앞세운 일과성의 행사로서는 지속적으로 불교가 현실 속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없다

더구나 올해는 유엔에서 정한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이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의 해', '한국방문의 해'로 정했다. 이런 큰 흐름에 맞춰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하고 그를 통해 불교를 널리 홍보하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中 "한국불교 배우자"

불교전래 2000년 맞아 중흥방안 모색 인터넷서 교리·문화 교육... 잡지 출간 中 종교학회, 동산불교대와 교류협정

문화혁명이후 50여년간 침체기를 가졌던 중국불교가 한국불교를 연구하여 불교중흥을 모색한다. 올해 불교전래 2천년을 맞는 중국불교는 이미 100년 분량의 대장경을 간행하고, 불교전래 2000년 기념사업회를 발족한 상태다

중국의 원력을 다지고 있다"며 "문화혁명이후 50여년간 사라진 불교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중국불교와 가장 가까운 한국불교를 모델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종교학회는 6일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과 학술교류협정서 조인식을 갖고 재가불교 학술교류와 우호교류활동을 전개기로 했다



중국종교학회는 6일 동산불교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조계사 일대 사적공원 조성

서울시 2002년까지 개발 서울시가 우정종국 주변을 사적으로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조계사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동들의 건물을 수용기로 했다. 사적공원에는 잔디와 나무를 심어 시민들이 쉬면서 문화유적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된다

북에 내의 보낸다

조계종, 1억원 상당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0일 북한에 1억원 상당의 내의를 보내기로 했다

Advertisement for '현대만평' (Modern Cartoons) by Park Gyu-won, featuring a cartoon of a man with a beard and a speech bubble saying '정체성 확립' (Establish Identity).

'불교의식 집전 방법' 조계종 포교사단 펴내 조계종포교사단(단장 김병기)은 6일 불교의식 집전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포교지침서 <불교의식의 이해와 바람직한 집전방법>을 발간했다

천태종 총무원 부·국장급 인사

교육·용암 사회·무원스님 총무·재무·교무 등 유임



교육·용암 사회·무원스님, 총무·재무·교무 등 유임.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5일 총무부장에 덕수스님, 교무부장에 춘광스님을 유임시키고 교육부장에 용암스님, 사회부장에 무원스님을 새로 임명하는 등 총무원의 부장과 국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부 "교과서 불교오류 개선"

교육부는 4일 조계종 포교원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불교관련 내용 수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교과서의 잘못된 기술이나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 및 보완사항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문제의 내용들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신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기관과 17명의 편찬책임자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위원장 정대스님)은 11일 중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전면 개편해 재개통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H.ch Gallery featuring a grid of various artworks, including calligraphy and paintings, with names of artists and titl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allery and a notice about a Buddhist art exhibition.